

눈길 끄는 특·특·행·정

민원서식 작성 QR코드로 쉽게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하세요”

장성군 8종 제작 읍·면 복지센터 부작

“QR코드 스캔하면 민원서식 작성법 알려줘요.”
장성군이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민원서식 작성방법과 예시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민원실에 비치된 민원서식 견본은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보기 힘들고, 누군가 작성하고 있으면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군은 민원인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 8종(주민등록 등·초본신청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혼인·이혼·출생·사망신고서,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 법정대리인 동의서)을 QR코드로 제작해 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부착했다.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민원서식 작성방법과 예시 이미지로 바로 연결돼 민원인은 어디서나 내용을 확인하면서 민원서류 작성이 가능하다. <사진>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며 변화는 시대에 앞서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개화전 1회·개화기 2회 당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 지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함평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방제를 실시하고 적기에 방제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약제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화 전 약제방제는 배는 꽃눈이 트기(꽃눈 발아) 전,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된 약제로 실시해야 한다.
약제에는 구리 성분이 들어있어 석회유황합제 등 다른 약제와 섞어 쓰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또 꽃 감염 위험도 정보를 제공하는 과수화상병 예측정보 시스템(<http://fireblight.org>)을 활용하면 지역별 적기 방제시기를 알 수 있어 방제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작업 시 작업 도구 소독 또한 철저히 해야 한다”며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로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 오미크론 확산 코로나 생활지원 예산 ‘빨간불’

이달 중 1차 추경 편성 나서

담양군이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자가 크게 늘어 남에 따라 인력·재정난을 겪고 있다.
21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총 853가구 2271명에게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1~2월 신청자만 553가구 1298명에 이른다.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입원·자가 격리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정부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동일 주민등록 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군은 국비를 포함해 총 1억3400만원 규모의 본 예산을 편성했지만, 확진자 수가 급증해 2개월 만에 예산 범위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총 지원 대상의 절반 수준을 넘긴 셈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

1차 추경을 통해 국비 포함 총 9억6500만원으로 증액해 지급할 예정이지만, 현재 확진자 수 증가세라면 이마저도 금방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정부지침 변경 적용 여부 등 신청자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한 달 이내 지급하지만,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업무량 증가와 예산 부족 등 지급 날짜가 늦어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강진군, 1198억 증액된 2차 추경안 편성

5644억원...역대 최대 규모

강진군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미래의 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군 역대 최대규모로 전 군민 일상 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 대비 1198억원(26.9%)을 증액해 총 5644억원을 편성했다.
추경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확정분과 지난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마련했다.
편성 내용은 ▲코로나 예방접종 및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가족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사업에도 예산을 반영 지원할 계획이다.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 ▲다산 애절양공원 조성 ▲하멜존 조성 ▲강진만 생태체험관 조성사업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이 밖에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남포교차로 및 위험도로, 위험사면 정비 ▲도시재생사업 ▲도시가스 공급사업 ▲마을하수도 및 하천 정비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도 포함됐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

장흥군, 안중근 의사 순국 112주기 추모제 봉행 26일 위패·영정 모신 해동사서

장흥군이 안중근 의사 순국 112주기를 맞아 추모제를 봉행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인 ‘해동사’에서 순국시간에 맞춰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 추모제가 열린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비대면으로 추모할 수 있는 ‘안중근의사 온라인 추모 분향소’도 운영을 시작했다.
장흥군 홈페이지에 마련된 온라인 분향소에서는 현화와 함께 추모 글을 남길 수 있다.
한국연연맹과 장흥군은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3월을 ‘나라사랑 연날리기의 달’로 지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5대 강에 비친 안중근과 해동사’라는 주제로 한강 등 전국 5대강 유역에서 추모연 날리기 행사를 갖고 영상물로 제작해 온라인 홍보를 실시한다.
또 지역 초·중학생 대상으로 안중근 의사 종이 장난감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연으로 이어지는 나라사랑’ 시연을 선보인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2주기를 맞아 오는 26일 장흥 해동사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지난해 추모제 모습.
추모제 행사일인 26일에는 해동사와 탐진강변에서 단자연, 태극연 등 추모연 날리기 행사를 진행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안중근의사의 순국 112주기 추모제 봉행을 통해 미래 세대에 나라사랑 마음이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 접수

나주시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지난 2020년부터는 기존 쌀 중심의 농정 전환과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해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해당된다.
농업인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 ▲후계 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신규대상자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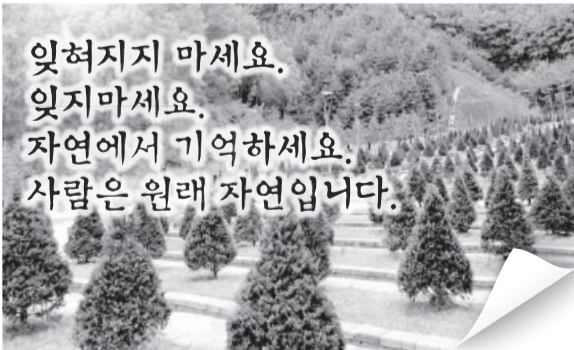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1522-9341